DAC의 개혁논의와 우리나라의 기여 분야

정 진 규 주OECD대표부 참사관

I. 서 언

1. DAC 개혁논의의 배경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0년말에 동 위원회의 맨데이트 개정[1] 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2007년 OECD 이사회의 DAC 심층평가(In-Depth Evaluation of the DAC) 권고에 의해 'DAC에 대한 전략적 개혁방안 검토(Strategic Reflection Exercise)' 를 실시, DAC이 국제개발환경에서 보다 적절한 기관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BRICs로 대표되는 거대 신흥국가의 등장, 아프리카 빈곤상황의 고착화,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국제적 이견 등은 DAC회원국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공여국들에게 글로벌개발원조체제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준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지난 약 50년간 DAC이 주도해 오던 글로벌 개발원조체제의 효율성(efficiency)과 적실성(relevance)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개발원조체제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더욱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DAC은 2009년 5월 종료된 DAC 원조개혁그룹 최종보고서[2]에 의거, DAC개혁을 위한 세 개의 비공식 작업팀(Task Team, 이하 TT)을 설치[3] 하고 회원국 및 Non-DAC OECD국가,

1) The DAC mandate is to "…consult on the methods for making national resources available for assisting countries and areas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for expanding and improving the flow of long-term funds and other development assistant to them." (Inside the DAC: A Guide to the OECD DAC 2007-2008).
2) Reflection Exercise : Investing in Development – A Common Cause in a Changing World. (DCD/DAC(2009)23/REV1 참조)
3) 동 작업팀은 제1작업팀(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및 글로벌 공공재), 제2작업팀(글로벌개발협력 거버넌스), 제3작업팀(DAC 조직운영)의 세 개 작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 업저버(세계은행, IMF)를 참석하게 하여 2009년 9월부터 구체적인 개혁방향 제시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2. DAC 개혁논의의 범위

DAC의 개혁작업은 전체 글로벌 개발 아키텍쳐(global aid architecture)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DAC자체의 개혁작업의 맥락에서 추진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바, 글로벌 개발 아키텍쳐 측면에서 진행되는 작업은 G20/G8의 개발논의, MDGs에 대한 기여, 다자개발기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모색, OECD전체의 개발목표 목표 제시, OECD 및 OECD회원국 차원에서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이하 PCD) 제고 등이며, DAC자체의 개혁작업은 DAC 작업내용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개선, DAC의 프로그램사업예산(PWB) 구조 효율화, DAC 조직운영의 효율화, 비회원국을 효율적으로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본 원고는 현재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DAC개혁작업의 대외적, 대내적 두 가지 수준의 논의와 방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 맥락에서 새로운 DAC회원국[4] 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여분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DAC 개혁작업(Reflection Exercise[5])

1. 주요 내용

2008년 DAC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이하 HLM) 결의사항으로 채택되어 약 1년간의 작업을 걸쳐 2009년 5월 HLM에 제출된 DAC개혁작업보고서는 DAC의장 주재로 21명의 회원국, 비회원국,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DAC개혁그룹(reflection Group)[6] 이 6차례의 회합을 통해 도출한 성과라고 할 것이다.

---

4) 우리나라는 2009.11.25 DAC가입심사(Accseeion Review)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 2010. 1.1부터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Republic of Korea's Readiness for a Accession to the DAC: Secretariat Report, 2009, DCD/DAC(2009)46).

5) 여기서 말하는 DAC은 DAC 정례회의뿐만 아니라, DAC 고위급회의(HLM), DAC고위관리회의(SLM), 산하조직(subsidiary bodies), 사무국(DCD)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6) 개혁그룹에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EC, 핀란드, 독일, 그리스, 한국,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UNDP, 세계은행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DAC 비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동 개혁그룹에 정식 멤버로 참가하였다.

동 보고서는 크게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환경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 개발문제가 '보편적인 대의(Common Cause)'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편적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ies) 설정의 중요성, DAC 작업의 효율성 및 적실성 제고를 통한 DAC의 적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글로벌 개발환경의 변화

DAC개혁작업보고서는 DAC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분쟁과 불안(conflict and insecurity),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위험, 인구, 경제, 환경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변화 등으로 정의[7]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글로벌개발협력이 현재의 경제금융위기로부터 개도국이 받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는데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화되는 국제경제 체제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취약국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예컨대 분쟁, 불안, 조직범죄, 내부적 폭력, 이민, 인신매매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동 보고서는 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이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개도국에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절대빈곤층의 규모도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전체의 규모에 있어서 2008년 사상 최대 규모인 1,200억불을 초과하였으나, 여전히 DAC회원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비율은 0.3% 수준으로 UN이 제시한 목표 0.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G8 글렌이글스 약속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 원조액의 분배와 활용에 있어서 각 원조제공 기관간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해결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8]

3. 보편적 대의(Common Cause)로서 개발

DAC 개혁작업보고서는 글로벌 개발원조정책이 다루는 여러 가지 공공재(public goods)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공재는 본질적으로 그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정 국가가 부담하나(the costs of a public goods are borne locally) 그 편익은 전세계가 공유하거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산출[9] 되는 바, 이에 대한 정책조정과 합의가 이루

7) 앞의 Reflection Exercise 보고서, p. 6
8) 앞의 보고서, pp.6~9.
9) 앞의 보고서, p.9

어 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공공재의 창출 구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BRICs와 같은 새로운 원조제공자가 DAC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원조에 대한 이행약속이나 원조기준에 대한 준수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글로벌 개발원조 추진체제 전반의 비효율성으로 연계될 위험성에 대해 DAC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대의로서의 개발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동 보고서는 '원조(aid)'를 초월하는 개념으로서의 '개발(development)' 개념의 도입, 개발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개선, 개발약속(development commitment)의 수준 상향조정, 합의된 글로벌개발목표(agreed global development goals) 수립의 4개 정책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10)]

가. 원조(aid) 를 초월하는 개념으로서의 '개발(development)' 개념의 도입

이는 현재 OECD가 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全** 정부적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 **全** OECD적 접근(whole-of-the OECD apprach)을 기초로 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과 연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원조'의 제공과 관리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조세(내부재원 동원), 무역, 투자, 이민, 반부패, 기술에 대한 접근, 체제 및 개인의 안전 등 정부기능 전체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글로벌차원에서 검토할 때, DAC회원국의 참여만으로는 어려우며,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신흥 글로벌 경제국들의 참여와 목표공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통적인 개발재원, 즉 ODA가 이러한 전정부적 접근법 전체에 대해 재원조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 바, ODA를 레버리지로 하여 Non-ODA 개발재원, 즉 국내재원, 민간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 개발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개선

개혁작업보고서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개선방향이 합법성(legitimacy), 책임성(accountability), 효과성(effectiveness)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아울러 개도국 전체를 동일한

10) 이하 설명은 앞의 보고서 pp.9~10참조. (4가지 정책우선순위의 원문은 Successful development needs more than aid ; The global institutional framework for development mist evolve further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to broaden its support ; Development commitments need to be stepped up ; Agreed global development goals, including halving global poverty by 2015)

집단으로 가정하지 않고 그들은 서로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참여자로 인식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견해를 프레임워크 개선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선 논의 과정에 양자원조기관 뿐만 아니라 다자기관의 의사도 반영해야 하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국이면서 공여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다. 개발원조약속(development commitment)의 수준 상향조정

개혁작업보고서는 2005년 G8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10년 ODA목표, UN제시 GNI 대비 ODA목표 등과 비교하여 현재의 ODA수준이 크게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획기적 재원증액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금융경제위기 대응, 기후변화를 위한 저감(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의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라. 합의된 글로벌개발목표(agreed global development goals) 수립

개혁작업보고서는 DAC의 주도하에 2015년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목표연도 종료 후 글로벌개발커뮤니티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11]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시점에 달성하지 못한 MDG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달성추구 방안, 취약상태 및 극단적 빈곤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될 10억명 이상의 인류에 대한 지원방안,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제시될 개발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4.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DAC작업의 효율성 및 적실성 제고[12]

개혁작업보고서는 원조효과성 의제설정에 있어서의 선도적 역할, 전체적인 개발재원의 흐름에 관한 통계작업, 개발이슈에 관한 정책권고 및 지침의 제공을 DAC의 핵심기능으로 선정하고 동 기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DAC의 작업으로는 기후변화이슈를 개발협력에 포함시키는 작업, 다자원조 추세의 검토, 향후 원조의 프로그램화 추진계획에 관한 서베이, 취약분쟁에 관한 국제네트워크 구축강화, 원조효과성 작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보고서는 개발분야의 글로벌거버넌스 재편에 있어서의 DAC의 역할강화, 개발을 위한 정책

11) DAC은 1996년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DCD/DAC(96)15/FINAL)' 발간을 통해 천년개발목표(MDGs) 설정 논의를 주도하였다.

12) 앞의 보고서 pp. 11~16 참조

일관성(PCD) 작업 강화, 글로벌공공재 문제를 개발전략 수립 시 통합하는 방안 등을 DAC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 작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DAC은 내적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적실성 높은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존 조직 구조를 보다 성과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전 분야에 있어서 개발관련 stakholders의 연계강화, 개발정책 분야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기능의 제고, 다양한 관련분야와 개발분야의 공동작업을 통한 정책간 조화 및 조정을 제고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Ⅲ. DAC 비공식 작업팀과 전략적 개발목표 비공식 작업반

DAC개혁그룹이 채택한 보고서와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DAC은 2009.9월 세 개의 비공식 작업팀을 설치하고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및 글로벌 공공재(제1작업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제2작업팀)[13] , DAC조직운영(제3작업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14] 이러한 DAC 내부의 이행논의 개시와 병행하여 OECD 전체차원에서는 Mario Amano OECD 사무차장과 Herald Naple 주OECD노르웨이 대사가 공동의장을 맡은 전략적 개발목표 비공식 작업반(DEVGOALS WG)을 설치하여 OECD가 다루는 정책이슈 전반을 포괄한 OECD 전략적 개발목표를 2010년도 각료이사회(OECD MCM)에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MDGs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G20/G8개발분야 논의에 기여해 나간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1. 비공식작업반 주요 논의 경과

가. 제1작업팀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및 글로벌 공공재

제1작업팀은 글로벌 공공재를 ODA와 Non ODA개발재원과의 관련성에서 파악하고 동 글로벌 공공재가 개발에 시너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 예컨대 재정적 인센티브의 발굴 등을 찾아내는 것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대상, 요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동 작업반은 글로벌 공공재와 정책일관성을 양대 축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개발목표와 관련하여 PCD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

13) 우리나라는 제2작업팀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14) 동 논의의 종합적 내용은 2009.10.19 개최된 DAC정책국장회의(DAC Policy Directors'Meeting)에 보고되었다.

상된다.[15]

동 작업반은 글로벌 공공재와 PCD추진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Global Challenges"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식량 안정성 확보, 전염성 질환에 대응, 평화와 안전의 증진, 금융안정성 제고, 개발에 기여하는 이민(making migration work for development), 자유공정무역제도 강화, 지식과 기술혁신 및 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제시[16] 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전략적 개발목표 비공식 작업반의 논의의 출발점[17] 이 되고 있다.

나. 제2작업팀 :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제2작업팀은 글로벌개발시스템의 투명성(transeparency) 제고 및 상보성(complimentarity) 증진, DAC와 글로벌거버넌스 체제(G20/G8 등)간 네트워킹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향후 이행해 나갈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의 제정, 글로벌 개발협력체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수립, 글로벌 개발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18] 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동 작업팀은 DAC은 글로벌 개발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의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정치적 맨데이트도 갖고 있지 않다는데 의견을 공유하면서 동 작업반이 추구해야 할 개혁방향은 원조효과성 증진(다자, 양자), 원조정책 결정 및 이행과정에서의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 감소, 전체 다자개발기구의 정책일관성 제고[19] 등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 실무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평가된다.

다. 제3작업팀 : DAC조직운영

제3작업팀은 대체로 DAC 논의과정의 효율성 제고와 프로그램사업예산(PWB)체제의 개선 등 절차적, 내부적 성격이 강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 진 동 작업반의 논의 중 DAC내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DAC 동료검토(Peer Review) 관련 지침과 DAC 고위급회의(HLM) 등에서 합의된 정책 가이던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는 문제, 현재 2년 주기의 프로그램사업예산 주기를 4년 주기로 확대하는 문제,[20] 산하작업반의 회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문제[21] 등 이다.

---

15) Task Team 1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Global Public Goods Interim Report (DCD/DAC/RD(2009)13/RD2) 참조.
16) 앞의 문서 p. 5.
17) Setting Strategic Development Goals for the OECD at the 2010 Ministerial Council Meeting (DCD/DAC/RD(2009)13/RD1) 참조.
18) 동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양자, 다자를 포괄한 각 공여기관간의 역할분담(division of labor), 파편화 정도(level of fragmentation)를 모니터링/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09.10.13 DAC TT-2 논의결과 참조).
19) OECD, Task Team 2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Interim Report (DCD/DAC/RD(2009)13/RD3) 참조
20)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이 나뉘어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09.10.9 DAC TT-3 논의결과 참조).
21) OECD, Task Team 3 Orgainzation of DAC Work Interim Report (DCD/DAC/RD(2009)13/RD4) 참조.

한편 동 작업팀의 논의 중 대외적 성격이 강한 의제는 DAC 논의과정에 비회원국의 참여확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회원국 참여확대 문제는 회원국 확대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며 여하히 주요 비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DAC의 적실성을 제고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전체적으로 OECD가 추진하는 관계강화(Enhanced Engagement) 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금년도 각료이사회 이래 사무총장이 주창한 'OECD 플러스 모델'[22] 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주안점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가들의 의견 반영 확대 및 DAC을 포함한 OECD 각 조직의 규범체제에 대한 동 국가들의 수용성 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적 개발목표 비공식 작업반(DEVGOALS WG) 논의 경과

2010년 각료이사회에 OECD 주도의 전략적 개발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2009. 10.30 제1차 DEVGOALS WG회의가 개최되었음. 동 작업반회의에서 회원국들은[23] 동 작업반이 도출할 목표는 OECD의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과 연계하되 OECD의 비교우위(added-value)를 고려하여 몇 개의 특정분야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방향은 지난 10월 DAC 정책국장회의에서 도출한 MDGS, 경제성장, 빈곤감소라는 전반적 목표와 기후변화, 취약 및 분쟁상황, 식량안보, 국내적 재원동원과 조세, 능력개발(Capacity Development), 거버넌스, 원조구도(Aid Architecture), 개발재원/혁신적 개발재원발굴, 언타이드화, 무역, 투자,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세부적 목표 선정[24] 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동 작업반은 OECD내 환경정책위원회, 공공거버넌스 위원회, 투자위원회, 뇌물방지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농업위원회, 무역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보건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의장과 사무국의 해당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PCD를 고려한 전략적 개발목표의 우선순위 초안을 2010년 1월 개최 예정인 개발이사회(Development Council)[25] 에 상정하고 동 이사회의 지침을 받아 작업하여, 2010년 각료이사회(MCM)에서 권고(Recommendation)형식의 최종 산출물을 도출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2) 동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는 (C/MIN(2009)1, par.49) 및 (ECSS(2009)7) 문서를 참조

23) 동 작업반은 DAC산하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사무총장 직속으로 설치된 바, 여기서 회원국이라 함은 전체 OECD회원국을 의미한다.

24) Priority area 관련 Room Document(2009.10.19, DAC Policy Directors' Meeting)

25) OECD는 2010년부터 매월 1~3차례 개최되는 이사회(각 대표부 대사 참석)중 연 1회를 전적으로 개발문제를 논의하는데 할애하기로 하고 이를 개발이사회로 명명하였다 (2010년에는 1.21 개최 예정).

Ⅳ. 우리나라의 기여분야

우리나라는 DAC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DAC개혁그룹에 정규멤버로 참여하는 등 DAC의 개혁작업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해 왔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정식 DAC회원국으로 DAC의 대내외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우리나라의 ODA수준은 1,200억불이 넘는 DAC회원국 전체의 ODA의 1%에도 미치지 못하나 세계 13위 규모의 경제력과 2010년 G-20 의장국, 2011년 HLF-4 개최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DAC개혁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OECD의 핵심정책 기조가 G-20에 대한 기여확대 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개발거버넌스 체제의 효율성 제고, 파리선언(PD)과 아크라행동계획(AAA)의 이행력 제고와 서울 HLF의 정치적 멘데이트 강화, 글로벌 공공재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적 개발목표를 G-20정상회의 의제 설정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 등은 OECD사무국 뿐만 아니라 OECD회원국이 우리나라에게 기대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울 HLF 주최국이며 DAC의 신규회원국(2010년 1.1부터)으로서 OECD 개발클러스터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PCD증진을 위한 논의 참여도 제고, DAC PWB 편성 참여를 통한 '서울 HLF' 준비의 우선순위 제고, HLF준비과정의 한 부분인 개발원조구도(aid architecture)논의와 G-20 개발 어젠더와의 연계강화 노력 등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OECD. Inside the DAC: A Guide to the OECD DAC 2007-2008

OECD. Reflection Exercise: Investing in Development – A Common Cause in a Changing World (DCD/DAC(2009)23/REV1)

OECD. The Republic of Korea's Readiness for a Accession to the DAC : Secretariat Report, 2009 (DCD/DAC(2009)46)

OECD. Task Team 1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and Global Public Goods Interim Report (DCD/DAC/RD(2009)13/RD2)

OECD. Task Team 2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Interim Report (DCD/DAC/RD(2009)13/RD3)

OECD. Task Team 3 Orgainzation of DAC Work Interim Report (DCD/DAC/RD(2009)13/RD4)

OECD. Setting Strategic Development Goals for the OECD at the 2010 Ministerial Council Meeting (DCD/DAC/RD(2009)13/RD1)

OECD. Enhanced Engagement and the OECD Plus Model (ECSS(2009)7)

OECD.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 Implementing G20 Pittsburgh Commitments (ECSS(2005)5)